

대기업 이달 본격 인사 시즌

삼성 “쇄신보단 안정”... SK “직급 폐지, 보직 단순화”

삼성전자 현 3인 체제 유지 주목
SK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관심
현대차그룹 12월 중순 임원 인사



SK그룹이 이번주 4일 경 임원 인사를 발표한다. 삼성도 이번 주에 계열 사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불안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계가 안정과 쇄신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중으로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6일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 2차 공판에 앞서 경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올해에도 '3인 체제'가 이어질지에 관심이 가장 높다. DS사업부 김기남

부회장과 IM사업부 고동진 사장, CE 사업부 김현석 사장 등이다.

그 중에서도 김기남 부회장 거취에 주목이 쏠린다. 김 부회장은 1958년생

으로 내년 63세가 된다. 고동진 사장과 김현석 사장은 1961년생으로 아직 60세를 넘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3인 체제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김 부회장이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위기와 1세대 10나노(1x) D램 리콜 사태 등 악재를 극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따라 유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다. 3세대 10나노(1z) D램에 극외선(EUV) 공정 도입 역시 김 부회장 업적으로 꼽힌다.

김현석 사장은 올해 QLED TV 시장을 더 확대한 데다 '더 월'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김현석 사장은 갤럭시 S10과 노트10으로 혁신 주도권을 찾아왔고, 보급형 제품인 A 시리즈 고급화 전략도 성공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

SK그룹은 4일 직원 인사 고과를 공개한다. 5일경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SK는 이번 인사부터 사실상 신규 임원과 대표 이사 변경 정도만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최태원 회장이 CEO를 제외하고는 임원 직급 제도를 폐지하고 본부장과 그룹장 등 보직을 중심으로 단순화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임원이 있기는 하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과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SK장동현 사장 등 3명이다.

그러나 모두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에너지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데다 LG화학과 소송전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5G

성공 도입 등 성과가 크고,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SK가 이번 인사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본격화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재계에서는 SK가 SK텔레콤을 중간지주사로 전환하고 SK하이닉스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져 왔다.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이 최근 FDA 승인에 성공하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로운 조직 개편안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도 올해 임원 인사 일정을 12월 중순으로 앞당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시 인사를 꾸준히 진행했었던 만큼 정기 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통업계 키워드는 '세대교체·성과주의'... 롯데 인사에 '촉각'

신세계그룹 백화점·인터내셔널 대표 상호교체
현대백화점 예년 보다 앞당겨 인사 단행
롯데 유통부문 실적 부진에 인사 주목



차정호 신세계 대표, 김형중 현대백화점 사장,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

연말 정기 임원인사 시즌에 돌입한 유통가에 인사 태풍이 불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겪고 있는 정체기를 인사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유통업계는 이번 인사 키워드로 '세대교체'와 '성과주의'를 내세운 만큼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상대적으로 젊은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임원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제는 막판 판짜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롯데에 초점이 향하고 있다.

롯데는 매년 크리스마스는 전후로 인사를 단행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 역시 올해 인사폭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유통부문 인사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뉴롯데'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식품, 유통, 화학, 호텔&서비스 등 4개 부문 BU장 중 식품과 화학 BU장을 교체했다.

때문에 올해는 유통과 호텔&서비스 BU장 중 적어도 1명은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유통부문 최고책임자는 이원준 유통 BU장(부회장)이고, 호텔&서비스부문 최고책임자는 송용덕 호텔&서비스BU

U장(부회장)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롯데그룹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9개 주요 상장 계열사가 3분기까지 총 1조 8547억 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동기(2조 8598억 원)대비 35.1% 줄어든 수치다.

롯데쇼핑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4.1%(1223억 원) 감소했다. 경기 침체와 오프라인 유통 규제에 따른 실적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올해 3분기 롯데마트 영업이익은 1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의류 및 생활 상품군 매출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줄어든 1조 6637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하이마트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40.2%(695억 원)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45.9%(585억 원) 감소했다. 매출부진과 온·오프라인 가격 경쟁으로 인한 판매단가 하락,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판매 관련 비용 증가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까지 '세대교체' '성과주의'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롯데그룹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29일 장재영 신세계 대표를 신세계인터내셔널 대표로, 신세계인터내셔널 차정호 대표를 신세계 대표로 맞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백화점과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 자리를 맞바꾸어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변화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자체 브랜드 강화와 글로벌화로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역대 최고 실적을 이끈 차정호 대표는 새로운 시각에서 백화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는 정몽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혁신을 위해 6년간 이마트를 이끌었던 이갑수 사장을 떠나보내고 강희석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파트너를 대표로 신규 영입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예년보다 앞당겨 인사를 단행했으며, 그동안 그룹을 이끌어온 이동호 부회장과 박동운 현대백화점 사장은 동반퇴진했다.

현대백화점 대표로는 김형중 한성 대표이사 사장에는 윤기철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이, 한성 대표이사 사장에는 김민덕 한성 경영지원본부장 겸 관리담당 부사장이 선임됐다. 상대적으로 젊은 임원을 전방에 배치해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과기정통부, 미래융합 이슈 8선 발표

2019 미래융합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융합,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의 '2019 미래융합포럼'을 4일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미래융합포럼은 융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융합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기조강연 ▲미래융합 이슈 8선 발표 ▲공개 강연 ▲과학난제 도전 전문가 토론회 ▲융합연구 성과 발표회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딥러닝 기반의 의료 데이터 가공·진단 솔루션을 개발 중인 선도 스타트업 뷰노(VUNO)의 이예하 대표가 '의료혁신을 불러온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 대표는 "상상으로만 가능하던 인공지능(AI)과 의료기기의 융합은 현실이 되었으며, 더 다양하고 도전적 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휴머니티', '신체적·사회적 노화 케어', '환경복지시스템' 등 인간 중심 미래사회 구현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미래융합 이슈 8선'이 발표된다.

/채윤정 기자

한국지엠, 한달 간 전 차종 최대 15% 할인

무이자 할부 선택시 최대 72개월

한국지엠이 올해 연말 과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지엠은 12월 한 달간 '아두 2019! 웨비 윈터 페스티벌'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 15% 할인하는 등 연간 최대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차종별 최대 혜택 폭은 말리부 15%, 스파크와 트랙스 10%, 카마로 9%, 이쿼녹스 7%이다.

고객이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말리부는 최대 72개월, 트랙스는 최대 60개월, 스파크와 카마로는 최대 50개월, 이쿼녹스는 최대 36개월까지

선수금 없이 무이자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오는 20일까지 스파크를 구입하면 추가 10만원, 트랙스는 추가 20만원의 조기 출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백범수 한국지엠 국내영업본부 전무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웨비레 브랜드와 제품을 향한 국내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과격적인 연말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더 많은 고객이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다마스라와 라보는 재고 혜택을 포함해



쉐보레 12월 판매조건.

최대 1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볼트 EV는 3.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프로그램과 150만원의 혜택을 동시에 지원하는 콤보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0개월 'ECO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다마스라와 라보, 볼트EV는 개인사업자대상 특별 판촉을 연장 운영해 최대 5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